韓國傳統住居에 나타난 家宅信仰과 空間構成에 관한 硏究*

천득염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나경수
(전남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손희하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나하영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대학원)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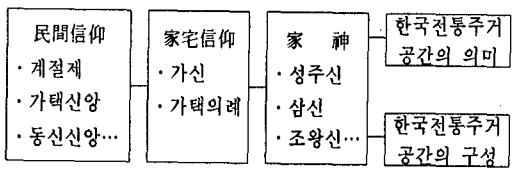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물적 대상인 동시에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복합적인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적 공간과 더불어 그 공간의 주체가 되는 거주자의 역사,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은유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民間信仰을 통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와 구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전통주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인문적 요인의 하나인 民間信仰의 여러 형태 중 주거공간을 배경으로 형성된 家宅信仰을 통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을 이해하고자 한다. 家宅信仰은 각각의 주거공간내에 존재하는 家神과 그들과 그들이 좌정하는 공간에 대한 의례인 家宅儀禮의 형태로써 나타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家宅信仰에서 등장하는 家神을 통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와 공간구성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는 가신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근간으로 건축적 입장에서 가신과 건축공간의 의미와 유기적 관계를 고찰하였고 문화재로 지정된 전라남도의 전통주거건축을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 향후 한국전체에 관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표 1. 연구의 구성체계



2. 家宅信仰에 대한 고찰

2-1 家宅信仰의 개념

家宅信仰은 공간적으로 대개 가내에 위치하는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1]으로, 집이라는 건물 자체를 神體로 하거나 그 건물에 거주하면서 건물의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공간에 사는 가족의 행과 불행에 관계하는 신들에 대한 신앙이다.

이처럼 家宅信仰은 가정 단위의 신앙으로, 주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서 주거공간이라는 배경 위에 성립된 가장 실제적인 民間信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家宅信仰은 거주자의 관점과 애착, 가족관 등

* 이 논문은 2000년도(계속과제) 전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분야 특성화 공동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p.18

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전통주거가 갖는 의미와 공간의 원리를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2 家宅信仰의 연원

家宅信仰의 역사적인 연원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에 나오는 고대 부족국가의 제천의례의 유습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2] 이것은 제천의례시 하늘의 天神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통해 추정하는 것으로 天神은 모든 신의 근원적인 존재로서 天神信仰은 모든 신앙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2-3 家神의 종류

家神은 天神, 人神, 雜神이라는 성격상 크게 上位神, 中位神, 下位神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上位神에 속하는 성주신과 中位神에 속하는 삼신, 조왕신, 조상신, 측간신 그리고 下位神에 속하는 우마신, 도장지신, 수문신, 철륭신, 용왕신 등으로 나눌 수 있다.[3]

표 2. 家神의 종류 및 좌정공간

位階	性格	家神	坐定空間	備考
上	天神	성주신	대청마루	호주
中	人神	삼신	안방	안주인
		조왕신	부엌	안주인
		조상신	사당	조상
		측간신	측간	첩
下	雜神	우마신	축사	소와 말
		도장지신	곳간	곡식
		수문신	대문	문
		철륭신	장독대	장
		용왕신	우물	물

3. 家神을 통해 본 전통주거공간의 의미

한국전통주거의 거의 모든 공간에는 신이 좌정해 있다. 따라서 家神들의 위계 및 성격 등을 통하여 그 좌정공간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3-1 上位神-天神의 공간

(1) 대청-城主神

대청마루는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위치하여 이들 방으로 출입하는 전실 역할을 하며 방과 마당 사이를 연결해 주는 가족공유의 생활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대청마루는 집의 중앙에 위치하여 구심점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대청마루 위의 대들보는 필요 이상으로 굵은 목재를 사용하여 주거의 권위를 대신하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청마루에는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담당하는 가옥의 최고신인 성주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대들보 및 상기둥[4]의 상부에 단지 또는 한지형태의 신체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그림 1. 城主神의 神體

한 집안의 으뜸신인 성주신은 天上과 地上을 연결짓는 매개체로서, 天神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신이다.

성주신이 天神的 요소를 지닌 상위신으로서의 家神임을 미루어 볼 때 좌정공간인 대청마루 역시 가장 위계가 높은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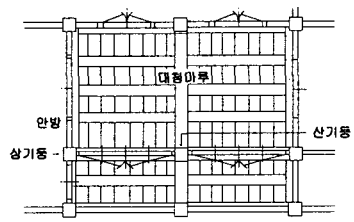
城主巫歌의 내용중에,

"제비원 솔씨 받아 용문산에 던졌더니, 그 솔이 자라 크니 소부동이가 자라난다. 소부동이가 점점 자라 대부동이가 되었구나…청장목 되고 황장목 되고 도리

2) 고대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속대계 1」, 1980, pp.685-690

3)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2, p.21
김태곤은 가신을 분류함에 있어 上·中·下의 위계 구분을 하고 있다. 본 연구 역시 표의 비고 부분을 통해 보았을 때 김태곤의 上·中·下의 위계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에 天神, 人神, 雜神의 성격을 기준으로 上·中·下의 위계로써 가신을 구분하였다. 또한 가신의 종류에 있어 이외에도 업신, 터주신 등이 있으나 이들은 지역적 분포나 특성이 고르지 못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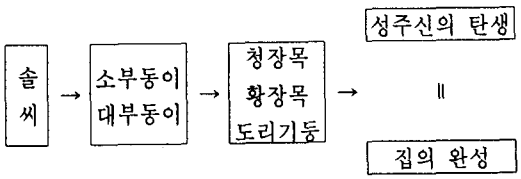
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5 -목조」, 普成閣, 1998, p.136
대청 툇간 안쪽에 세운 독립기둥을 산기둥 또는 어미기둥이라고도 하며, 안방과 마루방 사이에 있는 기둥을 상기둥(上柱)이라 한다.



기둥이 되었구나, 너집성주는 초가성주, 나집성주는 와가성주…"[5]

라는 대목이 있다. 즉, 이 노래는 천계의 하강신이 인간에게 솔을 심어 집 짓는 법을 마련해 주었다는 건축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성주신의 출현과정을 곧 건축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城主巫歌에서 나타난 성주신의 탄생 = 집의 완성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초의 건축행위가 성주신과 관련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가옥의 주재료로 소나무가 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청마루가 갖는 신성성과 위계성은 북퉁구스족과 Oronchun족의 천막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 주거 내부에는 그림과 같이 말루(malu), 또는 마로(maro)라고 부르는 장소가 위치해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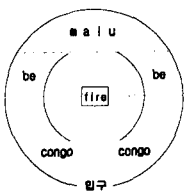


그림 2.
북퉁구스족의 ma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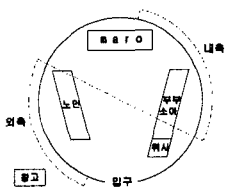


그림 3. Oronchun족의
maro

3-2 中位神-人神의 공간

(1) 안방-三神-안주인

안방은 성스러운 공간이라는 대청마루와는 대조적인 공간이다. 특히 안방에는 천장이 만들어지고 방을 에워싸는 六面에는 벽지가 붙여져 모든 구조체가 감추어지므로, 구조체가 노출되는 대청마루와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대조적 성격은 이들 장소에 봉안되는 신들 즉, 대청마루에 봉안되는 성주신과 안방에 봉안되는 삼신에 의해서도 표현되어진다.

안방에는 자녀의 출산·육아·성장 등을 관장하는 가신인 삼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안방벽 또는 시렁 위에 삼신바가지나 삼신동이를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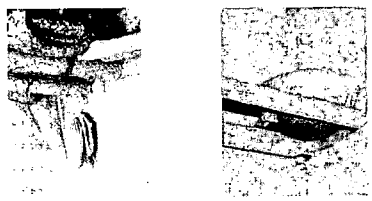


그림 4. 三神의 神體

삼신은 産神 혹은 三神으로 표기하기도 하는데, 우리말에 胎를 가르켜 '삼'이라고 하는 것이나, 탯줄을 삼줄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 삼신은 胎神으로서 産神을 의미[7]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삼신의 좌정공간인 안방은 여성의 專用空間으로서 출산시 출산을 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삼신 성립의 유래와 내력을 밝히고 있는 「초공본풀이」[8]를 통해 주거의 가장 안쪽 장소로서 안방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주인공 자지명왕 아기씨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대문을 폐쇄하고 또 밖에서는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는 것은 집의 內外 장소질서가 엄격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엄격한 內外秩序가 깨어져 아기씨가 회임, 출산하게 되었으나 중을 찾아 다시 환속하여 삼신이 되고 그리하여 가장 안쪽 장소인 안방에 좌정함으로써 內外秩序가 재구축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여성이 기거하는 건물들은 안쪽 깊숙한 곳에 그리고 남성의 공간은 바깥에 두는 것은 일종의 이상형으로서, 남향집의 경우 남성의 공간은 동쪽 또는 동남쪽에, 여성의 공간은 북쪽 또는 북서쪽에 위치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男左女右라는 위치개념은 음택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왼쪽은 양이고 오른쪽은 음이라 하여 각각 남자와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9]

(2)부엌-竈王神-안주인

부엌을 여성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방위의

5) 김태곤, 앞책, pp.74-77

6)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박사논문, 1991, p.113

7) 지춘상 외,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1998, p. 404

8) 진성기, 「남국의 무가」, 제주민속문화연구소, 1968, pp.37-50 제주도 큰굿에서 심방이 노래하는 巫祖神 신화, 또는 그 신화를 노래하고 기원하는 제의절차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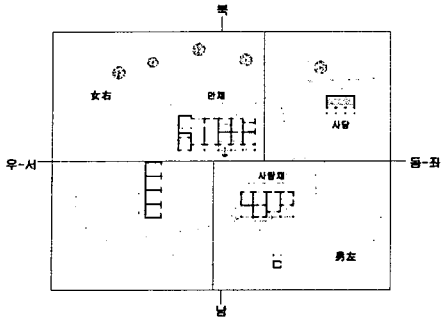


그림 5. 男左女右의 주거공간 (장흥 위성렬 家)

개념에서도 보여지고 있는데, 「三國志 魏志 東夷傳」 弁辰條에서는, "집에 부엌을 설치하는데 대부분 집의 서쪽에 시설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의 기거공간인 안채가 북서쪽에 위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미 상고 시대부터 부엌의 위치가 특정한 방위에 의해 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에는 아궁이와 부뚜막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부뚜막 위에 조왕중발 또는 조왕의 초상을 걸어 그 공간을 신성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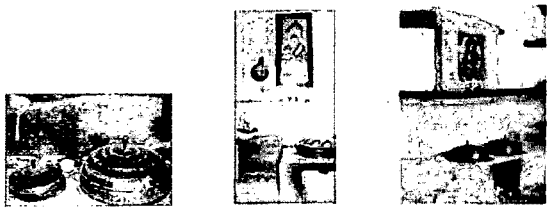


그림 6. 竈王神의 神體 (조왕중발, 조왕초상)

조왕신은 火神 또는 財物神으로도 인식되고 있는데, 조왕신이 火神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핌으로써 방의 온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며, 재물신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부엌에서 음식을 만 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왕신은 中位神의 범주에 속하는 人神으로 조왕신의 좌정공간인 부엌 역시 안방과 같은 격으로써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조왕신 성립의 유래와 내력은 하루 세 번 더운 불을 쬐면서 조왕할머니로 앉아 얻어 먹고 계시다는 내용으로 「문전본풀이」[10]에서 노래되고 있다.

이처럼 조왕신은 人神이라는 신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좌정공간인 부엌의 향 또는 부뚜막의 형태에 장소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3) 사당-祖上神-祖上

조선시대에 이르러 치국이념이 성리학인 까닭에 주자의 가례는 상대적인 힘을 가지고 귀족에게 있어서 효와 경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조상은 이승에서 후손과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전통주거는 生者인 후계와 死者인 조상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였던 것이다.[11]

이처럼 주거내에는 조상신이 존재한다고 믿어져 사당 또는 안방 윗목에 쌀을 가득 채운 단지 혹은 주머니를 걸어두거나 사당 건축의 축소된 모형이라 할 수 있는 감실을 모시고 의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감실 형태의 신체는 조선조 사당의 영향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당을 마련할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사당 대신 감실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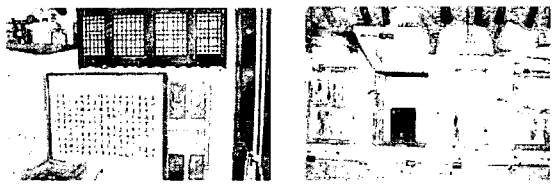


그림 7. 祖上神의 神體

조상신은 주로 한이 많거나 색다르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조상신으로 들어앉게 되는데 따라서 天神의 요소를 지닌 성주신과는 달리 人神의 범주에 속하는 家神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상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조상신은 성주신 이상으로 중요시되었으며, 이것은 주거내 조상신이 좌정하는 장소인 사당건축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사당터는 집을 지을 때 먼저 정하여 다른 건물보다 높은 자리에 세웠으며, 주위에 담을 두르고 출입문을 달았다. 그리고 사당의 위치는 정침의 동쪽으로 하는데,[12] 이는 동쪽에서 해가 뜨는 사실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옛부터 동방은 생명이나 부활의 상징이며 밝음의 표상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사당은 주로 3間으로 지어졌으며, 내외부에 단청을 입히고 벽화를 그렸고, 神門이라 하여 세칸 반퇴를 붙인 거대한 문을 따로 세우는 경우

10) 「한국문화상징사전」, ㅂ-부, 두산동아, p.318

9) 김광언, "주민생활과 민속", 「공간」, 1985, p.139

10) 「한국문화상징사전」, ㅂ-부, 두산동아, p.318

도 있었다.

이처럼 사당은 死者의 공간이기는 하나 人神인 조상신의 공간으로서 주거내 안방, 부엌의 공간위계만큼이나 중요시되었으며 또한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天神의 공간인 대청마루 못지않게 聖所의 공간으로 여겨졌다.

(4) 측간-측간신-첩

'뒷간', '정랑' 등으로 불리는 이 공간은 부엌의 반대편 또는 부엌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된다. 측간은 부속건물 중 하나지만 대·소변을 보는 인간의 생리공간으로서 필수적이기 때문에 四柱에 포함되었다.[13]

하지만 측간이라는 공간 특성상 주거내 공간 중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변소는 신체가 노출되는 개인공간으로서 서로 회피되어야 할 곳으로 인식되어졌는데,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이곳에 거처하는 측간신의 성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측간을 관장하는 家神인 측간신은 대개 신체를 모시지 않는 건궁신앙으로 존재한다. 대부분의 가신이 집안의 평안을 위해 돌보는 善神인데 반해, 측간신은 늙지 않는 첩신으로 신경질적이고 노여움을 잘 타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경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이는 한국전통주거의 변소가 갖는 깊고 어두움으로 인해 생기는 위험에 대한 대비를 신관념에 반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록 가장 더러운 곳이기는 하지만 대·소변이라는 생리적 욕구는 생명이 지속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측간은 주거내 필수적인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비록 惡神이기는 하나 첩이라는 人神으로 묘사되리만큼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또한 家神 중 유일한 惡神인 측간신과 조왕신과의 대립관계는 안주인과 첩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측간은 부엌과 멀어야 좋다는 말처럼 대지의 구석에 많이 배치되었던 것이다.

즉, 측간이라는 공간은 민간전래상 내려오는 방향성과 家宅信仰적 의미에서 내포하는 상징성에 의해 독특한 장소적 특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3-3 下位神-雜神의 공간

(1) 축사-牛馬神

소와 말, 특히 소는 농경사회에서 가장 긴요한 가축이었으며, 생활 수단으로 크게 이용되었다. 따라서 축사에도 중요성이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축을 추위와 도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는 주거 가까이에 만들어지게 되었다. 심지어 북부지방의 양통집에서는 사람과 거의 같은 공간에 소와 말이 거주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축사가 위치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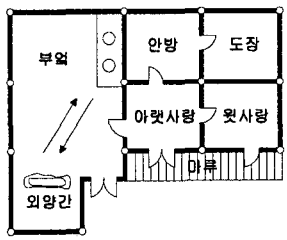


그림 8. 양통집의 축사배치

우리나라의 축사에는 소와 말의 건강과 무사를 담당하는 쇠구영신 또는 우마신이라 불리는 가신이 있다고 믿어져 이들 공간에 조차도 많은 의미와 신성성이 부여되어졌다. 이들 공간의 좌향은, 집의 좌향에 따라 방향성을 달리 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동향에서 남향 사이에 배치되었고, 소에게 죽을 쑤는 모습이 보이는 쪽을 으뜸으로 쳤다.[14] 따라서 부뚜막 건너편에 구유를 거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외양간을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家宅信仰적인 의미뿐만이 아닌 소와 말의 추위를 덜어주는 보호의 역할까지를 고려한 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사에 대한 신성성은 Masai족의 축사 배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Masai족은 그림과 같이 축사를 주거내 중심부에 위치시킴으로써,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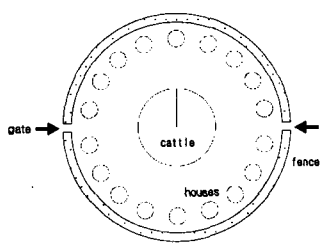


그림 9. Masai족의 축사배치

13) 장용득, 「명당론」, 에밀레 미술관, 1973, p.110

14)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pp.191-192

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형상을 이루는 중심역할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종교적이며 신비적인 상징을 지닌 것이며[15] 더불어 짐승이 거주하는 축사 역시 중요한 공간요소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곳간-도장지신, 노적장군

도장 또는 고방이라고도 불리며 주로 곡물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농업사회에서 곡물이란 식량일 뿐만 아니라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장하는 곳간 또한 중요한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이곳에는 지속적인 생성과 팽창을 주관하는 재복신으로의 기능을 지닌 도장지신을 좌정케 했다. 따라서 곳간 역시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의미에 있어 신앙적 의미와 중요성이 부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집의 좌향이 남향일 경우 곡간은 남향에서 서향사이에 배치되었다. 또한 「林園經濟志」에는 창고의 위치와 방위에 대하여 「곳간은 마당에 면해야 하며 물이 창고문을 향해 들어오면 좋다. 평상시 거할 적에 창문을 열면 5~6장의 거리에 처해 앉아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곡물창고의 사회적 의미와 함께 식량 및 재산을 담당하는 도장지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대문-守門神

대문은 세속적 공간인 외부세계에서 신성한 공간인 내부세계로 들어오는 열려진 개구부로서 외부의 물리적 위협에 대한 방어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잡귀나 병 등과 같은 미신적 위협을 차단시켜주는 심리적 보호물이라 할 수 있다. 한국전통주거의 대문에는 문을 지켜주는 家神인 수문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엄나무 또는 범뼈, 말뼈와 같이 잡귀를 쫓는 능력이 있는 동물의 뼈를 걸어두거나 붉은 물감을 사용한 그림이나 글귀, 부적을 신체로써 모셨다. 신라시대에 처용의 모습을 수문신으로 문에 그려 붙였다는 사실을 미루어 그 유래가 오래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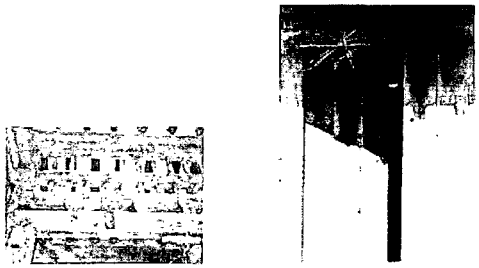


그림 10. 守門神의 神體

하지만 수문신은 제주도와 서울을 제외한 농촌에서는 대문의 개념이 약할 뿐 아니라 대문이 따로 없는 집도 많기 때문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家神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제주도에서는 중요시되는 家神 중 하나로 문전신이라고도 불리워진다. 제주도의 문전신은 다른 지방의 문전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집의 상방 앞쪽 부분을 차지하는 문신과 뒤쪽 문을 차지하는 문신이 있는데 전자를 '앞문전', 또는 '일문전', 후자를 '뒷문전'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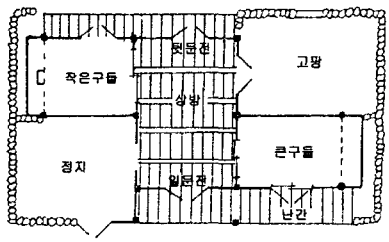


그림 11. 문전신의 위치

이와같이 한국전통주거에서 대문은 물리적 차원에서의 방어기능 뿐만 아니라 심리적 보호 차원의 시설물로써 인식되었다. 홍만선의 「山林經濟」에서 문 세우는 날을 따로 잡는 일, 좌향을 보는 일[16], 그리고 문의 높이와 크기를 정하는 법[17]을 상세히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수문신으로 인해 생겨난 신성성은 대문에 장소적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대문은 안과 밖의 세계를 교류하는 통로로서 수문신과 함께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통주거 공간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이자 시설물인 것이다.

(4) 장독대-철륭신

장은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식료품으로 대를 이어가며 먹는 것이기에 잘 살펴야만 했다. 따라서 장독대는 주거내 주요공간임과 동시에 가내의 평안과 무병을 담당하는 철륭신이 있다고 믿어져 신성시하였다.[18] 원래 철륭이라는 말

15) Amos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p.57

16) 「民宅三要」: 夫日要者何 門主灶是也 門乃間之路

17) 「黃帝宅經」의 五虛五實의 내용 중 하나

18) 장주근, 「한국민속대관」, p.105-108

은 집 뒤의 터신 또는 집 뒤의 터를 뜻하는 것으로 장독대가 주로 뒤곁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장독대에는 철륭신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신성공간으로서의 특성과 의미를 한층 심화시켰던 것이다.

(5) 우물-용왕신

우물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을 공급해 주는 장소로서 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 용왕신이 있다고 믿어져 정월 14일에는 용왕신에게 제례를 행하였다.[19] 이는 좋은 물이 솟아나야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무병하기에 다른 주거내 공간과 더불어 주요한 시설물로 취급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즉, 우물의 위치는 건물의 前後方向은 반드시 피해야 하고 우물과 부엌은 서로 마주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우물물의 향은 남동쪽으로 내보내야 좋다고 했으며 우물물이 대문 앞으로 흘러 나가면 복이 나간다고 하여 금기시하였다. 또한 예로부터 우물물의 향은 本山의 生旺한 방향에 두어야 길한 것으로 여겼으며 本山이 金體일 경우에는 서쪽에, 木體일 경우에는 동쪽에 위치시켰다.[20] 민간신앙에서는 우물은 巳亥方이라 하여 南東쪽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동향 및 北西쪽의 우물도 一體災厄이 면제받는 吉방향으로 간주했다.[21] 특히 정남향의 우물은 가장 不吉한 우물로 터부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南쪽은 火이므로 相剋火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물고사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우물에서 오물을 제거하고 지붕을 씌우거나 금줄을 쳐 당분간 물을 먹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위생상의 청결함까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우물은 신앙적 의미와 상징, 청결함의 유지 그리고 위치와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거공간에 있어서 聖의 공간 중 하나였던 것이다.

4. 家神을 통해 본 전통주거공간의 구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전통주거공간내에 좌정하는 家神은 인격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인격신이 인간을 상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결국 家神들의 관계는 거주자의 사회적인 상황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신들의 관계가 전통주거공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家宅信仰에서 나타나는 家神과 한국전통주거공간과의 상징적 연관성 속에서 한국전통주거의 평면을 크게 위계와 조직구성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겠다.

4-1 전통주거공간의 위계

家神에는 가족성원과 그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상징적인 질서체계가 투영되어 있다. 이러한 家神의 위계는 출현빈도와 젯드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집안에 모셔지는 家神들의 출현빈도를 보면 지방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적으로 성주신, 삼신, 조왕신 등이 비교적 많이 섬겨지는데 이는 결국 집의 중심으로서 대청, 안방, 부엌 등이 주거공간 중에서 비중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22]

즉 생활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에 따라서 그 관할신도 중요시되었으며 신의 신적 위치가 바로 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제주도 무속의 젯드리

젯 드 리			
1	옥황상제(하늘 차지신)	14	명궁(명부사자)
2	지부사천대왕(땅 차지신)	15	세경(農畜神)
3	산신대왕, 산신백궁(산신)	16	군웅, 일월조상
4	다섯용궁(바다 차지용신)	17	성주(가옥신)
5	서산대사, 육관대사	18	문전(문신)
6	삼승할망(産育神)	19	본향(부락수호신)
7	홍진국대별상서신국마누라	20	영혼, 혼백, 마을제사영
8	날궁전, 달궁전(日月神)	21	칠성(부와 곡물의 신)
9	초공(巫俗神)	22	조왕(부엌의 신)
10	이공(서천꽃밭 주화관장신)	23	오방토신
11	삼공(前生神)	24	주목지신, 정살지신
12	시왕(저승과 생명 차지신)	25	울담, 내담지신(울타리신)
13	차사(시왕의 사자)	26	눌굽지신(낟가리의 신)

19) 장주근, 앞책, p.117

20)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석사논문, 1978, p.135

21) 전태수, 「가상학 입문」, 명문당, 1978, p.138

22) 김광언, 「한국의 住居民俗誌」, 민음사, 1988, p.67
82년 전북, 충북, 경북, 경기지방의 조사를 기초로 한 것임 (오늘날 가신의 신체 및 의식은 대부분 사라진 실정이며 따라서 가신들의 출현빈도에 대한 조사는 어렵다 할 수 있다. 이에 82년 김광언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가 가장 최근의 실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의 위계[23]는 모든 신들을 청해 들여서 기원하는 제주도의 綜合祭인 큰 굿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굿에서는 신들을 청해들이는 순서를 젯드리[24]라고 하는데 젯드리란 祭와 드리(순서, 순위)의 복합명사이다. 따라서 젯드리는 祭의 순서, 신들의 위계순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家神간에는 上·中·下라는 위계구조가 있어 이 신들의 존재 및 위계가 주거공간의 위계구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家神간의 위계질서와 한국전통주거의 위계적 공간구성과의 상징적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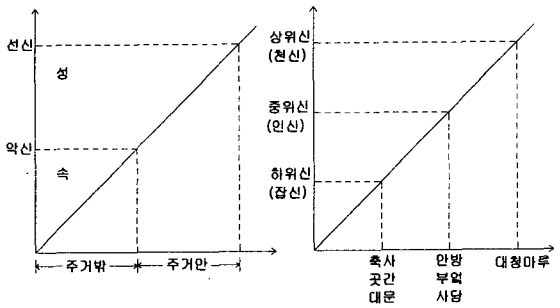


그림 12. 신의 위계와 주거공간과의 관계

4-2 전통주거공간의 조직구성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조직구성은 「문전본풀이」와 「성주굿」등의 신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문전본풀이」[25]의 내용이다.

<문전본풀이>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7형제를 낳고 가난하게 산다.…(중략) 할 수 없이 귀일의 딸을 첩으로 삼아 겨죽을 먹으며 연명해 간다. 기다리다 지친 여산부인은 배를 타고 남편을 찾아 오동고을에 닿았다. 겨우 남편을 찾고 보니, 첩이 나타나 아양을 떨며 목욕하러 가자고 유인하여 물에 빠뜨려 죽여 버린다. …(중략) 7형제의 간을 내어 먹고, 한 배에 셋씩 세 번을 낳아 아들 9형제를 낳겠다는 말이 그럴싸하여 남편은 칼을 간다. 이를 안 막내아들이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 멧돼지 간 여섯을 내다가 형들 간이라고 계모에게 드린다. 먹는 체하며 자리 밑으로 숨긴 것을 걷어치워 계략을 천하에 폭로한다. 겁이 난 첩은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 칙도부인이 되고, 면목없는 아버지는 올래로 내닫다가 정낭에 걸려 죽어 정주목신이 된다. 7형제는 물에 빠져 죽은 어머니를 살려내어 부엌의 신인 조왕으로 앉히고, 아들 중 위로 5형제는 오방토신이 되고, 여섯째 아들은 뒷문전(상방의 뒷문신)이 되고, 똑똑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은 일문전(상방의 앞쪽 문신)이 되었다.

위의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보면 네개의 대립항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남선비↔부인: 남선비가 집을 나가서 첩을 들임
② 부↔첩 : 첩이 부인을 죽임
③ 첩↔아들형제: 아들형제의 지략으로 첩을 죽임
④ 남선비↔막내아들: 남선비의 비겁하고 어리석음과 막내아들의 용맹하고 지혜로움

위의 「문전본풀이」에서 나타나는 각 家神들의 위치와 공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장인 남선비(정주목신)의 위치는 대문, 부인(조왕신)은 부엌, 첩(칙도부인)은 변소, 아들들은 집안의 문과 마당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가신들과 그 위치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문전본풀이」에서 나타나는 家神들의 공간적 위치

주거	안	부인	조왕신	부엌	善
		막내아들	일문전신	일문전	
	안과 밖	오형제	오방토신	마당	惡
		여섯째아들	뒷문전신	뒷문전	
	밖	남선비	정주목신	정낭(대문)	
		첩	측도부인	변소	

위의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家神들의 위치 중 가장 특이한 것은 남선비, 즉 가장의 위치이다. 다시말해 호주인 가장이 살림채 내 중심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인격화된 가신과 주거와의 상징적 연관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집은 한 담장안에 한채의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성장하고 분가함에 따라 보통 두채, 많게는 네채까지 지어지게 된다. 따라서 집안을 수호하는 가장인 남선비가 집안에 좌정하는

23) 家神의 위계관계를 묘사한 家神神話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다만 제주도 종합제의 젯드리에서 신들의 위계를 살펴볼 수 있다.
24)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1
25)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pp.267-268

것보다 입구를 지키는 것이 주거공간 전체를 지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또한 변소는 가축의 축사와 관련된 기능적인 이유로 담장안에 지어지게 되는데, 변소의 불결함을 피하기 위해 부엌을 변소와 반대편에 놓는 속신이 있다. 그것은 첩(변소)의 불결함은 남선비(대문)가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배열이 되는 것이며, 결국 첩과 부인과 가장을 화해시키고 연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은 자식들(마당)이라는 것은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구조도식으로 표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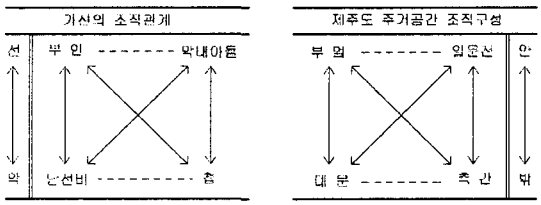


그림 13. 家神들의 위치와 주거공간 조직구성과의 연관성

여기에서 (--)로 표시된 것은 우호관계이며, (↔)로 표시된 것은 대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강한 대립을 이루는 것은 대각선 방향의 부인과 첩의 대립적인 관계이며, 또한 그것은 막내아들과 남선비의 강한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공간적인 의미로 전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민가는 건물의 수와 크기에 따라 그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三間집[26]이다.

이와 같은 배치에서 본채의 공간구성은 다소 변형될 수 있지만, 부엌과 변소의 위치가 반대의 위치에 놓이는 것과 대문에서 마당이 직접 맞닿지 않고 긴 올래[27]가 만들어지는 것은 제주도 민가에서 중요한 원칙처럼 되어 있다. 이는 (그림 14.)의 대각선에 놓인 대립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부엌과 일문전은 안쪽공간을 상징하며 善神의 위치이고, 대문과 변소는 바깥쪽 위치이면서 惡神으로 나타남으로써 주거공간이 안/밖의 관계, 더불어 聖/俗의 관계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기도 화성지역의 「성주굿」[28]巫歌[29]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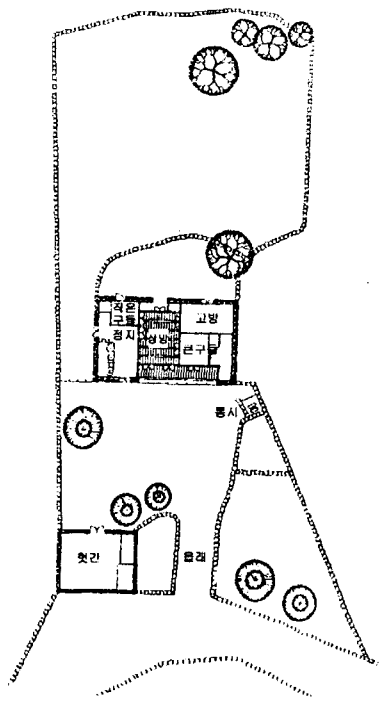


그림 14. 제주도 성읍마을 이영숙가옥

조왕신과 성주신의 대립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무가에서는 조왕신이 할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로 나타나고 있다. 황우양씨가 성주신이 되는 내력이 서술되어 있는 이 무속신화에는 문전본풀이와는 달리 조왕신이나 측간신이 가족으로 등장하지는 않으며 다만 천하궁의 차사가 황우양씨를 잡아가려 하자 조왕할아버지가 이에 협조함으로써 이들의 대립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성주굿>

… 천하궁의 차사가 황우양씨 집에 들어서자 업왕이 길을 막아 황우양씨를 잡아갈 도리가 없어 쩔쩔맨다. 이 때 조왕할아버지가 차사에게 말한다. "내일 아침에 황우양씨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어머니를 마중나갈 때 재주껏 잡아가도록 해라" 이에 황우양씨가 항의를 하자 조왕할아버지는 그럴만한 연유가 있음을 말한다. "황우양씨 내외가 평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괘씸해서 그러느니라. 황우양씨는 나갔다가 돌아

26) 주남철, 「한국의 전통민가」, 아르케, 1999, p.514
27) 제주도 민가에서 보이는 개인집으로 들어오는 골목

28) 김태곤, 「한국의 무속신화」, 집문당, 1985, pp.123-134
29) Yahoo 국어사전-무가, 신화, 금성출판사, 1997
· 무가 - 무당이 무속 의례에서 신을 향해 읊는 노래
· 신화 -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事績), 민족의 태고적 역사 등,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단군 ~ / 그리스 ~ / 건국 ~)

오면 긴 목버선을 벗어, 나 있는대로 팽개치니 그도 괘씸하거니와, 그의 부인은 식칼을 갈아 부뚜막에 얹어놓으니 그것 역시 괘씸하지 않느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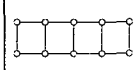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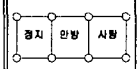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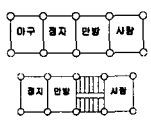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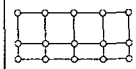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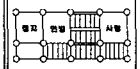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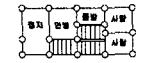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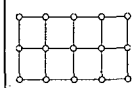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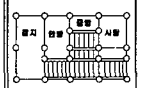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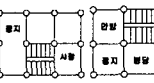
위의 「성주굿」의 내용을 보면 성주신과 조왕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황우양씨 ↔ 조왕할아버지 : 천하궁의 차사가 황우양씨를 잡아가는데 조왕할아버지가 협조함

이는 신화의 내용이 공간적 속성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미루어 볼 때 황우양씨와 조왕할아버지의 대립관계는 마루와 부엌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강영환의 '주거 평면형태와 공간구성'[30] 구분에 의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평면형태와 공간구성

間 배열형태		공간구성	
		서부지역	동부지역
홑집			
반겹집			
겹집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마루와 부엌은 지역과 평면형태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맞붙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온돌이 아닌 마루가 깔린 대청마루와 불을 사용하는 부엌의 공간적 성질로 인해 화재예방의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주거공간구조와 가신에 의한 사람의 은유가 일치하는 것은 신화적인 내용에 맞춰서 일부러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관계가 거주자의 인문적 상황과 공간적인 상황에 빗대어져서 주거공간에 설정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이해하자면 가신신화의 내용속에는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문적인 관점과 공간에 대한 관점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5. 사례분석

전라남도에 위치한 전통주거 중 건립연대가 비교적 오래되고 과거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의 위계구성은 1-上位神, 2-中位神, 3-下位神으로 나타내었으며, 공간의 조직구성은 전통주거에 있어 穴에 해당하는 대청마루에 원을 표시한 다음 화살표로써 나타내었다.(표 7.)

이상의 분석결과 전통주거 평면에 있어서 방위에 관계없이 일련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술한 가택신앙의 일반적 배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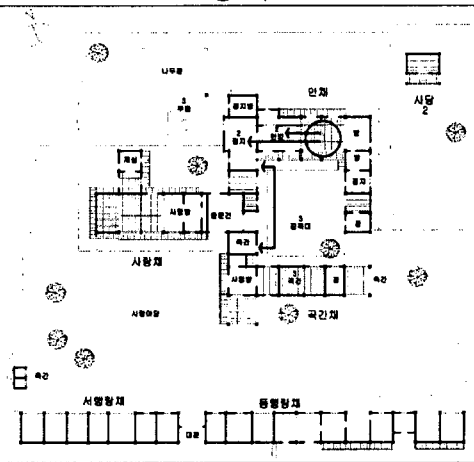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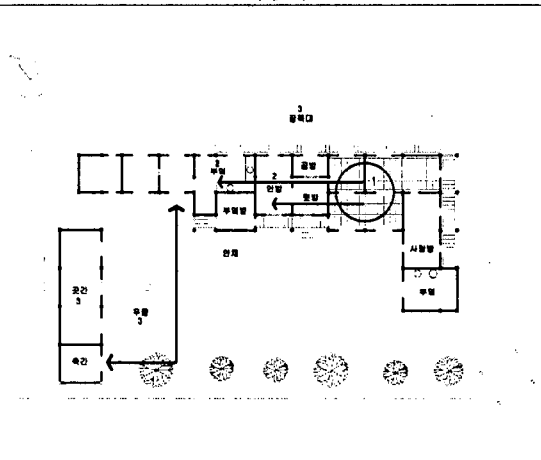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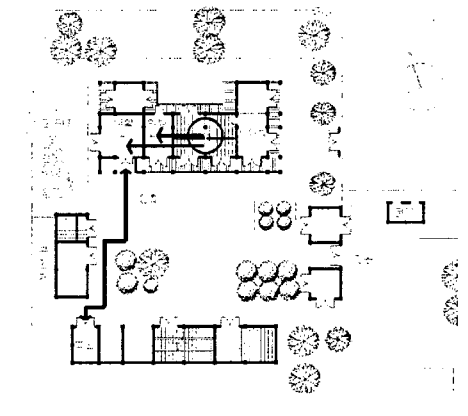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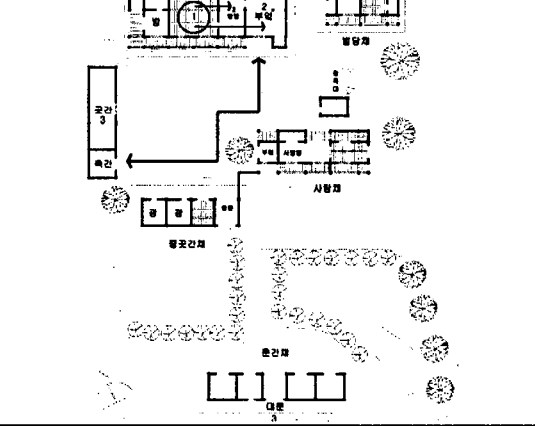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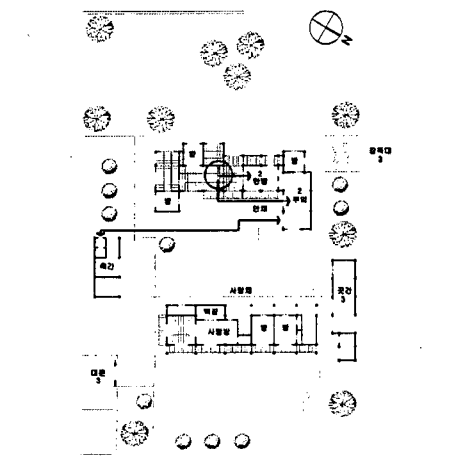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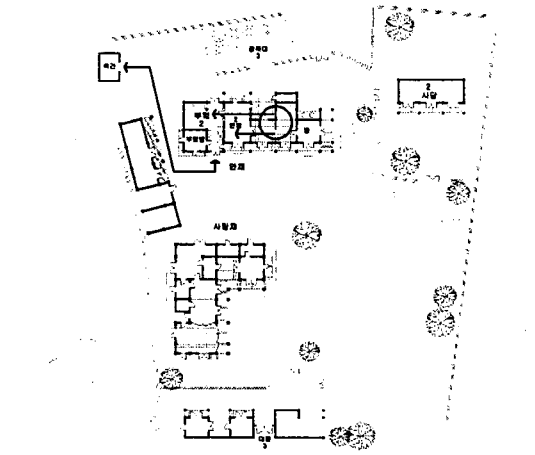
표 8. 전통주거의 공간구성

공간의 위계구성	· 1번 上位神은 주거의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2, 3번으로 갈수록 대문을 통한 외부공간과 가까워진다. - 내부와 외부가 대립되는 구조인 전통주거는 그 내부성이 강조되는 것이며 그 공간대립성은 실의 중요성에 따라 배치되는 신의 위계에 의해서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공간의 조직구성	· 대청마루↔부엌(성주신↔조왕신) : 시각축이 바로 면하지 않음, 장해요소 있음 (ex.안방) · 부엌↔측간(조왕신↔측간신) : 시각축이 꺾어져 있음 - 신들의 관계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주거공간에서의 공간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은 것임

이러한 사항들이 모든 한국전통주거에 정확히 적용되는 요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람들의 정신속에 존재하는 이상적 배치로서 向과 方位, 공간조직구성 개념 등은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된 가택신앙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0) 강영환, "地方大木들의 知識體系 分析을 통한 傳統住居文化의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2호 통권 40호, 1992. 2, p.97

표 7. 공간분석도

空間分析圖	
운조루	이범재
	
이금재	이용욱
	
양동호	홍기응
	

6. 결론

가신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건축 공간에 대한 의미를 다소 소홀히 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신과 건축공간의 유기적 관계에 관심을 갖고 전통주거공간의 위계와 조직 구성을 파악코자 하였다.

주거를 배경으로 형성된 家宅信仰은 주거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생각과 애착, 가족관 등이 반영되어 있어서 한국전통주거가 갖는 의미와 공간의 조직 구성원리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家宅信仰에서 등장하는 家神을 통하여 한국전통주거공간의 의미와 구성원리를 고찰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주거에 있어서 각 공간들은 원시종교의 하나인 민간신앙, 특히 가택신앙 등에 의하여 공간의 특성과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주거공간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家神에 의한 神性은 주거공간 전체 속에서 聖俗의 의미, 방향성, 상징성 등을 가짐으로써 한국전통주거의 독특한 공간개념으로 작용하였다.

2. 따라서 한국전통주거를 가택신앙의 신앙적 체계로 보면, 건물로서의 주거건축이 家神이라는 인격체로 의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건물로서의 주거'와 '家神의 거처'가 동일시되는 동시에, 주거는 家神이라는 신격체들로 신성시되어 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즉, 한국전통주거는 기본적으로 기능에 의한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신의 개념과 함께 각 공간에 가신이 좌정함으로써 신성공간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가신의 종교적인 상징과 의미를 통하여 재앙을 방지하고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 이처럼 한국전통주거는 부정한 외부와 정화된 내부가 대립되는 내외 대립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전통 주거 내부는 신이 보호해 주는 대문에서 주거내부공간까지의 신성영역과 주거 밖의 속된 공간과 구별, 대립되는 聖俗의 구조를 지녔다.

5. 또한 주거내에 존재하는 家神의 위계가 주거공간의 중요성과 위계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들의 존재는 그곳에 거주하는 거주자와 그들의 생활을 반영하며 가신들간의 위계질서는 곧 주거공간의 위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광언, 「한국의 집지킴이」, 다락방, 2000
2. 徐有榘, 「林園經濟志」, 보경문화사, 1983
3. 이규태, 「우리의 집 이야기」, 기린원, 1991
4. 金秉基, "韓國傳統住居建築에 表出된 民間信仰의 影響에 關한 硏究", 중앙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5. 朴在夏, "韓國 民間信仰 象徵體系의 場所化에 관한 硏究-河回마을을 中心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8
6. 서영대, "韓國古代 神觀念의 社會的 意味",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1991
7. 李貞任, "전통주거건축 환경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논문, 1987
8. 朱英愛, "朝鮮朝 上流住宅의 살림空間에 관한 生活文化的 考察", 성신여대대학원 박사논문, 1992
9. 崔炳佑, "韓國傳統建築의 住居空間에 關한 硏究", 영남대대학원 석사논문, 1983
10. 김란기, "마루의 공간적 의미", 「건축과 환경」, 1987. 1
11. 배도식, 「한국민속학18-한국의 이사풍속」, 민속학회, 1985
12. 최인학, "제의와 여성", 한일비교민속심포지엄, 1983
13. National Folk Museum, 「민속학연구」, 제6호, 1999

A Study on the Shamanistic House Sprits and Spatial 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Cheon, Deuk Youm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
Na, Kyung Su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
Son, Heui Ha
(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
Na, Ha Young
(Graduate Student, Chonnam National Univ)

ABSTRACT

Living spaces are the results of social environment and also the reflection of the viewpoints by their residents toward human culture and society. Therefore, in studying living spaces, the true essence of the spaces could be easily distorted when cultural and symbolic motives and values are disregarded and only their apparent characteristics are looked into. Hence, it'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understand both physical dwelling spaces from architecture's view points and social ideas, simultaneously, of people who form and interact with the spaces.

Hence, this paper tries to study housing religion which is one of shamanistic religions which, in turn ,have been the fundamental element of ancient religions and came into existence on the basis of dwelling spaces. This study presumes that house religion may have been permeated with its creators' ideas about living and those ideas could be one of those factors which plays a role in organizing of dwelling spaces.

As such, with these prior analyses, this thesis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various dwelling spaces via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ities of various house spirits which are mentioned in a local house religion and also will find out spatial harmony of Korean traditional living spaces by way of corelations among living spaces, people, and personalized house spirits.

Almost all traditional Korean houses have assigned a house spirit to their individual dwelling space. This means a traditional house was considered as a scared space in a secular world called human society and the space was actually intended to protect sacredness of dwelling places from earthliness outside.

So when the hierarchy of house spirits in housing religion is projected to a Korean traditional house, it can be shown that a dwelling house as a building was personified to a respectable human status.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each space was synonymous with a dwelling place for each house spirit and was considered a sacred godly place.

In a nutshell, not only each space in a Korean traditional house was a physical and functional space, but also it formed a scared spatial place along with the concept of house spirits intending to ward off disasters and enjoy a comfortable life through those religious symbols and meanings.

Housing shamanistic religion which has long been existing with residents and their lives is seeped with the viewpoints of the residents toward life, and hence understanding the meanings and organization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can reveal commonly practiced principles of spatial organization of the traditional houses. Therefore an analysis of Korean traditional housing on the basis of humanistic social ideas will help learn Korea's traditional houses which need to be understood in various methods.